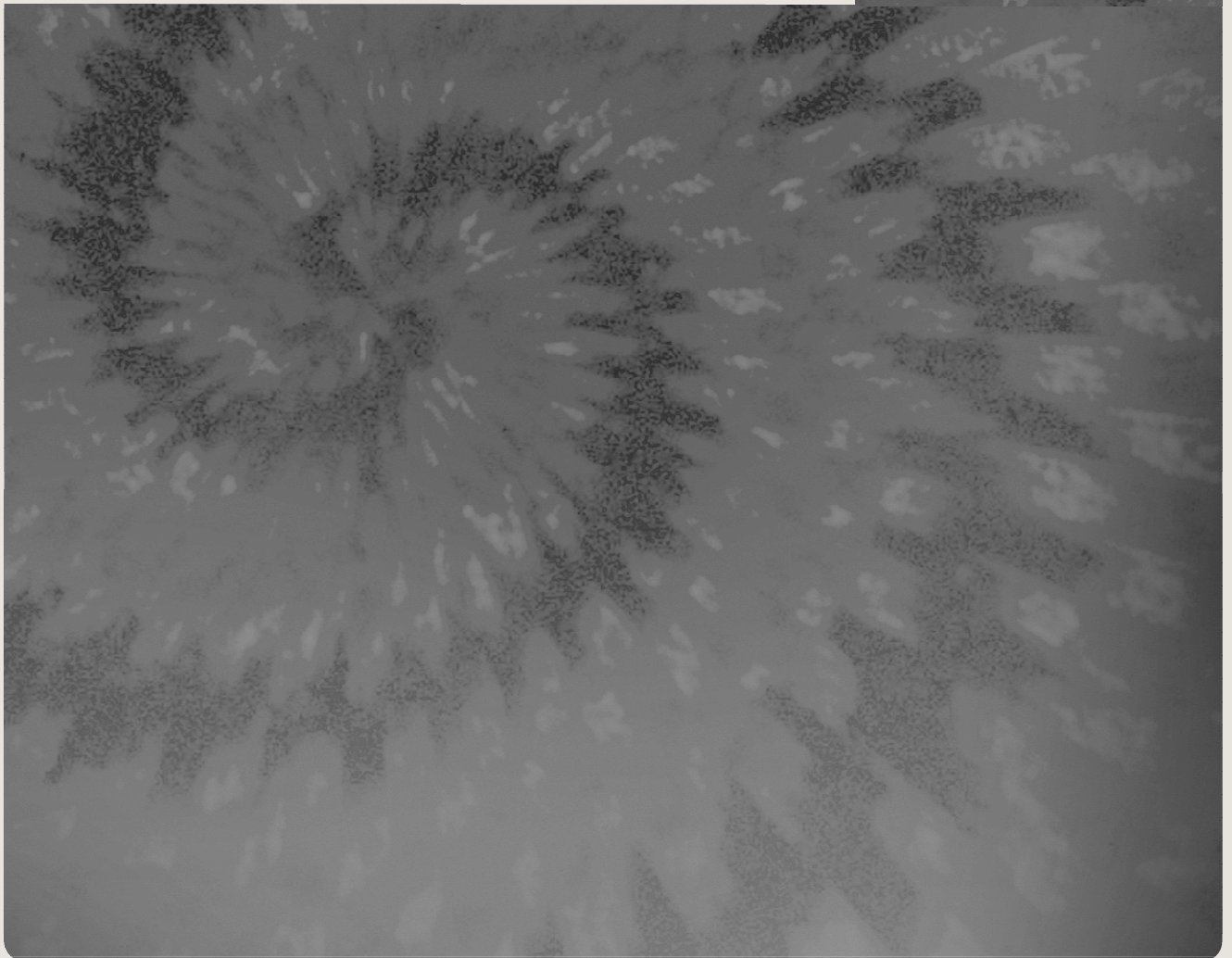


2 0 0 6 마 약 류 범 죄 백 서

제 4 장

마약류단속 국제협력 동향



제1절 유엔의 마약관련 활동 지원

1. 유엔의 마약관련기구

가. 유엔마약통제본부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 UNDCP)

- 유엔의 마약관련 최고 집행기구로서 1991. 3. 1. 기존 유엔사무국의 마약과(DND), INCB 사무국, 마약남용통제기금(UNFDAC)을 통합하여 설립됨
- 유엔의 정책결정기구인 마약위원회(CND)와 지역회의(HONLEA) 등의 개최를 주도하며, 세계 각국의 마약류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및 기술지원 등 마약통제정책을 집행함
 - ※ 1994. 12. 6.~12. 9.에는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사무총장 Mr. Giacomelli 방한.
 - 1998. 8. 24~8. 26.에는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사무총장 Pino Arlacchi가 방한
 - ※ 2000. 9. 4.~6.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사무국장 Mr. Herbert Schaepe 방한
 - ※ 매년 6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UNDCP 사무총장이 격려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음
 - ※ 우리정부는 UNDCP에 매년 \$100,000 이상의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음

나. 국제범죄센타 (Centr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 CICP)

- 범죄예방,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형법개혁관련 유엔기구로 주로 국제조직범죄, 부패 및 인신매매 관련 업무 담당

다.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UNODC)

- 1997. 11. 1.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UNDCP와 CICP를 통합해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 위원회(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ODCCP)를 설치하여 마약 및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통합된 협력, 조정센터 마련
- 범죄 및 마약 상호 관련사업에 대한 협력, 조정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ODCCP내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전략위원회(strategy committee)를 설치·운영
- 2002. 10. 1. ODCCP를 UNODC(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n Drugs and Crime)로 개명

라.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INCB)

-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거 1968년 설립된 유엔마약협약 이행 감시를 위한 독립된 준사법기관임
- 마약류의 합법적인 제조, 거래 및 판매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의료용 및 과학용 마약류의 공급량 파악 및 합법 마약류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합법통로에서의 불법적인 유출을 감시하고,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각국을 지원함
- 한편, 마약류의 불법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며,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파악함

마. 유엔 마약위원회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CND)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산하 6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위원국은 53개국(임기 4년)이며 마약통제정책 결정의 핵심이 되는 심의기구임
- 매년 3~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함
 - ※ 한국은 1991. 5. 위원국으로 피선되었고, 1995. 5. 재선됨
 - ※ 제37차 회의 (1994. 4.)에서 의장국으로 피선되어 활동한 바 있음

바.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the Pacific - HONLEA)

- 마약위원회 산하 지역별 마약류 단속책임자 회의로서, ① 아·태지역 ② 유럽 ③ 중동지역 ④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⑤ 아프리카 지역회의가 있음

2. 유엔주도 각종 국제협약

가. 1961년 마약에관한단일협약 및 1972년 개정의정서

- 이전까지의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단일화한 협약
- 현재 116개의 마약이 관리대상이며 아편, 헤로인, 모르핀 및 코데인 등의 천연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의 합성마약, 코카인 및 대마 등을 통제함
- 2002. 12. 현재 173개국 가입
 - ※ 한국은 1964년 가입(1964. 12. 발효, 개정의정서 1975. 8. 발효)

나.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 관리대상물질은 현재 111개로, 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향정신성 물질로 각성제, 환각제, 항우울제 및 진통제 등이 있음
- 2002. 12. 현재 172개국 가입
 - ※ 한국은 1978년 가입(1978. 4. 발효)

다. 1988년 마약류불법거래방지협약

- 불법 마약류의 국제적 이동 및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1988. 12. 19. 채택되어 1990. 11. 11. 발효됨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아세톤, 무수초산 등 22가지 원료물질을 통제·관리
- 주요내용
 - 자금세탁처벌, 불법수익몰수, 범죄인인도, 통제배달기법, 화학물질통제, 해상불법거래방지, 국제우편물규제 등임
- 2002. 12. 현재 166개국 가입
 - ※ 한국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 1995. 1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내법 정비를 완료했고, 1998. 12. 1 협약가입을 위한 비준 준비절차를 완료한 후, 같은 해 12. 28. 협약가입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의 152번째 가입 당사국이 됨

3. 유엔의 마약류퇴치 프로그램

가. 마약류퇴치10개년 (UN Decade against Drug Abuse) 선포

- 1990. 2. 유엔에서 마약문제에 관한 특별총회를 개최, 1991~2000년을 마약류퇴치 10개년으로 선포함

나. 세계마약퇴치의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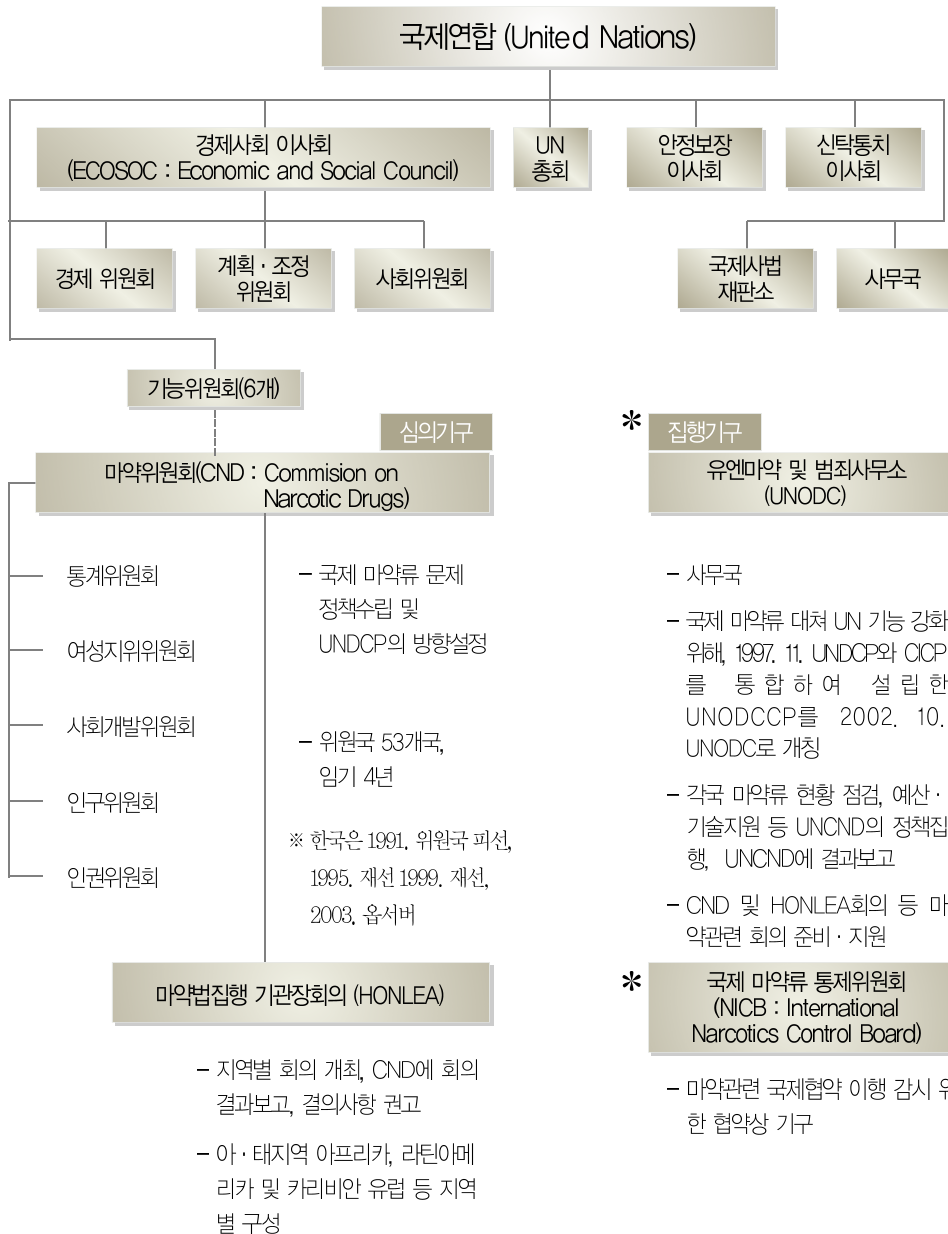
- 1987. 12. 유엔총회에서 매년 6. 26.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촉구함

※ 한국은 이와 관련 6월 한달 동안 정부유관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마약류 퇴치국민대회, 포스터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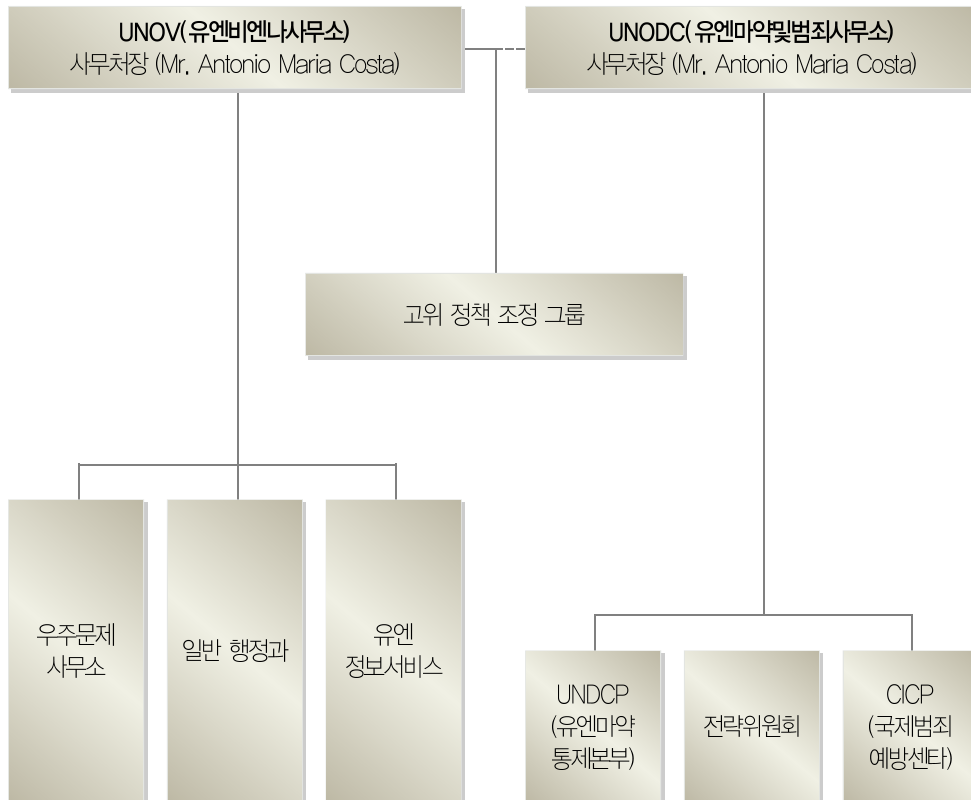
다. 유엔마약퇴치 친선대사 (UNDCP Goodwill Ambassadors) 제도

- 1991. 5. 제 34차 CND 회의에서 한국이 대사제도 창설 제의함
- 1992. 6. 한국 출신의 정트리오(정명화, 정경화, 정명훈)가 초대 대사로 임명되어 1992. 8. 서울에서 대사활동을 시작, 로마, 뉴욕, 파리, 도쿄 등에서 연주회를 개최
- 현재 유엔마약퇴치 홍보대사로는 멕시코출신 미NBA 농구스타 Eduardo Najera, 일본 축구스타 Hidetoshi Nakata, 브라질출신 미NBA 농구스타 Nene Hilario,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미NBA 농구스타 Vlade Divac, 이란의 축구전설 Khodadad Azizi, 그리고 일본 대중가수 Tetsuya Komuro가 적극적으로 활동 중임

● 국제연합 마약관련 기구표 ●



◀ 유엔 비엔나 사무국 기구표 ▶



제2절 국제협력회의 개최

1.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창설 · 운영

- ADLOMICO(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서울주재 각국 외국대사관을 회원으로 1989. 4월 첫 회의 이후 분기별로 대검 마약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이란,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영국,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으로 총 21개국임
- 매년 6월 회의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마약의 날(6. 26.)'을 기념하여 회원국 본국의 마약류관련 전문가, 한국 이외의 해외주재관 및 한국의 유관기관 국·과장급 및 실무자들이 공동 참석하는 확대회의로 서울, 부산, 경주, 제주, 속초 등지에서 2~3일간 개최됨
- 2006년도 확대회의는 2006. 6. 14.~16. 부산 조선폰에서 16개국, 2개 국제기구 등 총 130여명의 각국 마약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마약류 범죄 실태 및 현황, 불법 마약류 공급차단, 국제공조수사 등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제3절 아세안프로젝트 수행

1. 아세안프로젝트

-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아세안 회원국 전원의 승인을 받아 아세안 사무국에 유보되어 있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이용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마약퇴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수행을 위해 2007년 라오스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주요 아세안 회원국에 순회 출장소를 설치



[그림 4-1] 아세안 프로젝트 지원지역

- 마약퇴치 국제협력 연락사무소(LOICOG : Liaison 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olden triangle region)은 국제마약거래조직에 관한 현장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에 제공하는 한편, 한국의 마약수사 노하우와 선진 수사 장비를 아세안 지역

에 제공함으로써 마약청정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최근 새로운 경제 블록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에 대한 마약퇴치전략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임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은 태국 등 10개국, 인구 5억 8천만명, GDP 7,000억 달러

2.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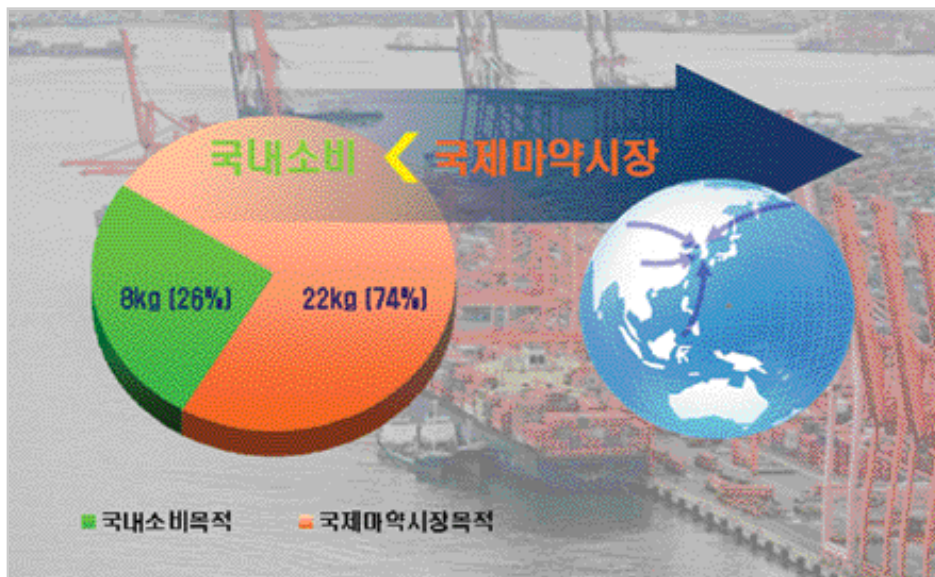
● 국내 마약류사범 동향 변화

- 그동안 마약류사범퇴치전략의 성공적 수행으로 2003년 이래 국내 마약류사범은 1만 명 이하로 감소되었고, 특히 국내 밀조조직은 거의 궤멸되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국제마약거래조직은 마약청정국인 한국을 국제거래의 경유지로 활용하거나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방지할 경우 마약의 간접적 공급국가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그럼에도 현행 수사시스템은 종전의 투약자 진술을 기초로 한 상선추적수사 기법에만 주로 의지함으로써 국제거래조직에 대한 근본적 척결에 한계를 보여 왔음
- 위와 같은 마약류사범 동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약생산·공급지의 현장성 정보를 취득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국제거래조직의 배후를 척결함으로써 국제거래조직이 한국을 마약의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 \ 마약류	향정	마약	대마	계
미 국	150	60	1,260	1,470
필 리 핀	600	—	420	1,020
말레이시아	130	20	160	310
태 국	70	10	150	230
일 본	40	10	10	60
베 트 남	20	30	30	80
싱 가 포 르	0.5	0.4	0.4	1.3
중 국	—	20	—	20
한 국	1.5	0.2	0.3	2

【각국 인구(15~64세) 1만명당 마약류사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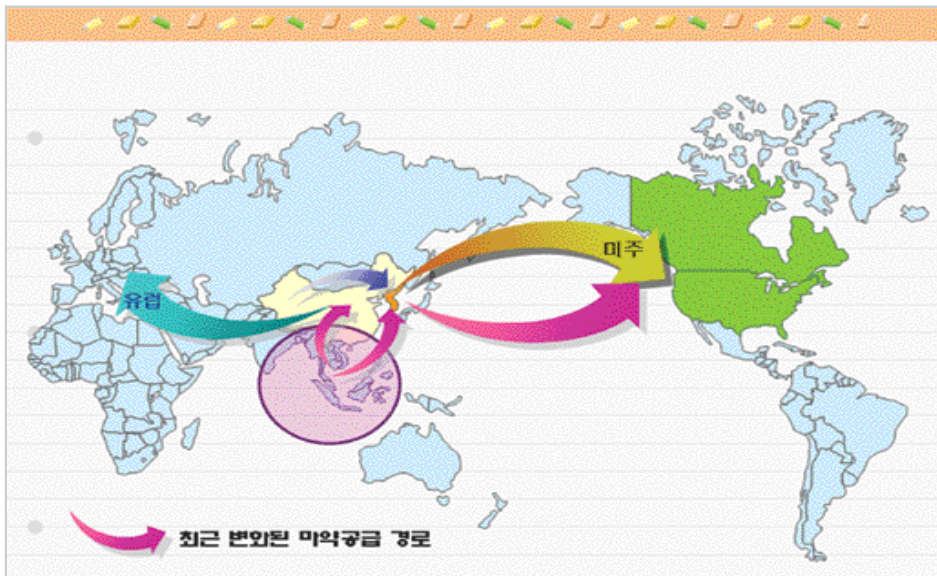
중국, 필리핀은 일부 통계자료 미확인 / 자료출처 : 2006 World Drug Reoprt



[그림 4-2] 필로폰, 코카인 거래 목적 (2006)

※ 총 밀수량 중 경유목적 거래량(74%)이 국내소비 목적 거래량(26%)을 압도적으로 추월

- 국제 주종 마약류 생산·소비 동향 및 공급경로 변화
 - 주종 마약류 : 아편, 헤로인 ⇒ 필로폰
 - 마약류 공급경로 : 중국-한국-미주, 유럽 ⇒ 동남아-한, 중-미주, 유럽



[그림 4-3] 최근 마약류 공급경로 변화

- 그동안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아프간,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유엔과 각국의 협조 하에 헤로인 원료 물질인 아편(Opium) 재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아편을 커피 등으로 대체하는 대체작물 지원정책이 대대적 성공을 거두었음
- 이에 따라 국제 마약거래 조직은 2003년 이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편재배를 통한 헤로인 생산 대신 작은 공간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필로폰을 대체 마약물질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그 동안 필로폰 최대 생산지 중 하나였던 중국에서 최근 필로폰 밀조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자 2004년 이후 중국 내 필로폰 제조책들이 비교적 필로폰 단속 역량이 미약한 라오스, 미얀마, 태국 국경부근,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로 생산 및

공급 근거지를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 향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필로폰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한층 농후하므로 이를 차단할 필요성 긴급

▶ 라오스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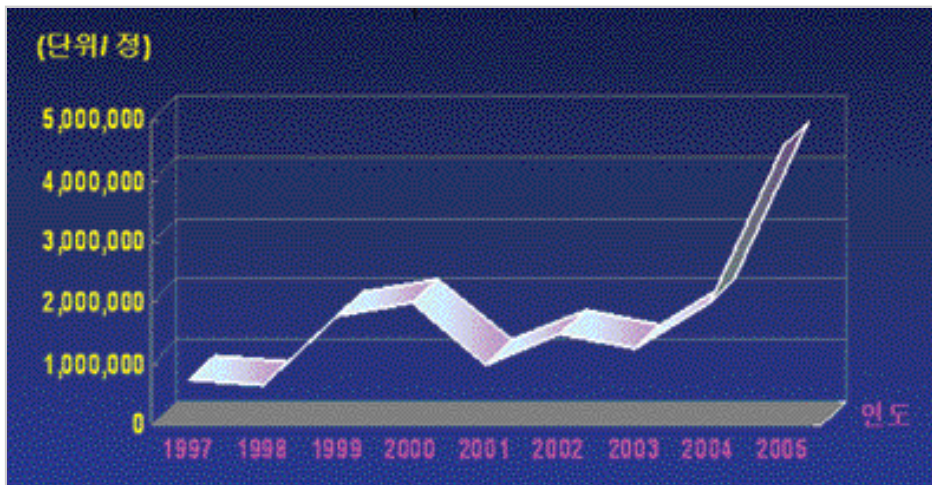
- 국가명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DR)이며, 총 면적은 236,000km²(한반도의 약 1.1배), 인구는 약 540만명, 수도는 비엔티안으로 약 54만명 거주, 인구의 95% 불교 숭배, 1인당 GDP 477불(2005년도)로 최빈 개도국임
- 1996. 9. 19.부터 주라오스한국대사관 설치(교민 약 350명), 2004년도 교역규모는 수출 5억5천만불(목재, 의류, 전력, 커피), 수입 10억5천만불(기계, 원자재, 식품, 섬유)이며, 특히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1천40만불, 대 라오스 투자액은 총 19건에 8천5백4십만불에 이르는 등 최근 한국과의 교역 급증

● 마약류사범 동향 등

- 라오스는 미국 정부의 아편 대체작물 지원 정책으로 1998년 124톤에서 2004년도 45톤, 2005년도 14톤으로 아편 생산량 급감, 아편중독자(전체인구 540만명)도 2003년 29,961명, 2004년 28,946명, 2005년 20,160명으로 감소 추세
 - 그러나 비엔티안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무직자, 유흥종사자, 학생, 폭력배 사이에 필로폰 투약이 급증하고 있으며 필로폰 압수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알약 형태로 정제된 필로폰 1정이 1달러 정도로 저렴하게 거래됨

마약류	내국인		외국인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아 편	17	6	0	0	17	6
헤로인	24	12	1	0	25	12
필로폰	283	111	8	0	291	111
합 계	324	129	9	0	333	129

【라오스의 마약류사범 체포현황 (2005)】



[그림 4-4] 최근 라오스의 필로폰 압수량 추이

마약류	신규현황			누적 총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대마초	1	0	1	1	0	0
아 편	5	0	5	5	0	5
필로폰	361	16	377	1,023	24	1,047
알 콜	0	0	0	31	0	31
기 타	0	0	0	19	0	19
합 계	367	16	373	1,079	24	1,103

【라오스의 마약류사범 등 치료재활 현황 (2004)】

※ 자료출처 :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05년도 연례보고서

- 라오스정부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치료재활 위주의 정책 전개
- 통계자료를 통해 라오스 정부의 마약류사범 단속 체제가 취약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3. 추진 경과

- 2006. 5.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아세안국가에 대한 마약퇴치 지원계획(아세안프로젝트)을 수립, 외교통상부와 법무부를 거쳐 자카르타 소재 아세안 사무국에 송부
- 2006. 6. 한·아세안회의에서 위 프로젝트 배포 후 협조 요청
- 2006. 8.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SOMTC 마약고위관계관회의에 대검찰청 마약과장이 참석하여 태국, 필리핀 마약청장, 인도네시아 마약단속국장, 중국 금독국 부국장 등 주요 아세안 회원국 고위관계관 및 UNODC, 아세안 사무국 관계관과 개별접촉, 한국의 아세안프로젝트의 긴급성, 필요성 등에 대해 설득, 본 회의 시 회원국 참가자 전원이 우리 측 제안에 대하여 지지표시
- 2007. 1. 아세안 프로젝트 아세안 회원국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
 - ※ 외교통상부 동남아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세안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향후에도 외교통상부와 위 사업수행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 임

4. 향후 추진계획

- 2007. 2. 대검찰청 마약과에 마약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아세안프로젝트 테스크포스(T/F) 팀 구성
- 2007. 2. 라오스 현장 답사, 구체적 지원분야 논의
- 2007. 3. 라오스 LOICOG 설치, 마약수사관 2명 파견

- 2007. 6. ADLOMICO(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회의시 라오스 및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초청
- 2007. 3.~11.까지 위 LOICOG을 통해 한국 검찰의 마약수사기법 전수, 수사 장비 지원, 지원대상국 마약관계관과 마약퇴치 캠페인 주관, 마약공금지 현장 정보수집 등
 - ※ 주요 지원 수사 장비
 - 수사용 차량(지프, 트럭), 오토바이,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9개 품목
- 2007. 12. 아세안 회원국 마약관계관 초빙 워크숍 개최
 - 라오스에 대한 아세안프로젝트 성과보고, 향후 지원 대상국가 및 지원 프로그램 업그레йд 논의
 - ※ 2007. 4. 아세안 사무국 방문, 추진경과 및 워크숍 준비 등 논의
- 2008.~2009.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업그레йд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 국가 확대
- 2010. 2. 아세안프로젝트 실행결과 아세안 사무국 최종 보고 후 종료

5. 기대 효과

- 아세안 지역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위한 초석 마련
 - 그동안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아세안 국제 마약조직을 통제하여 왔으나, 아세안 회원국 전원의 동의로 아세안 협력기금을 이용하여 지원사업을 주도 하게 된 것은 한국이 최초임
- 국내 마약수사시스템의 획기적 변화 기대
 - 투약자 진술에 의존한 상선 추적수사인 단선식 수사로는 국제 마약거래조직을 일망 타진하기 어려우나, 공금지 현장에 수사관을 파견함으로써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제조, 공급책으로부터 하선을 추적해 가는 투망식 하선 추적 수사 가능
 - 공금지 현장 정보분석팀, 대검찰청 국제정보분석팀 그리고 일선검찰청 수사팀 간의

정보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제 마약거래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공조수사에 검찰
역량을 집중, 마약수사의 블루오션 개척



[그림 4-5] 향후 검찰 마약수사 단속 모델

- 아세안 회원국과의 교류 확대
 - 마약퇴치 지원사업으로 한국의 선진 마약수사기법, 한국의 법제도 소개 및 국내산 과학수사 장비 등 마약통제 관련 물자지원을 통하여 한·아세안 국가간 사회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

제4절 2006년도 마약관련 국제회의 참석

1. 유엔관련 국제회의

가. 제49차 유엔마약위원회(CND) 회의

- 2006. 3. 12.~16,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어 한국(대검찰청 마약과장 이준명, 부산고등검찰청 김윤상 검사가 대표로 참석) 등 114개국, 29개 국제기구 및 NGO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하여 제20차 유엔마약특별총회 후속조치, 수요 감축 방안 및 공급차단 방안,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의 정책지침 및 국제마약통제조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

나. 제29차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HONLEA) 회의

-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아·태지부 주관으로 2006. 11. 13.~17.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어 한국(대검찰청 마약과장 이준명) 등 UN경제사회이사회 아·태지역 27개 회원국, 캐나다, 벨기에 등 3개 참관국, 2개 국제기구가 참석하여 지역 내 협력 상황, 마약단속정책과 관련한 에이즈 문제, 지역별 헤로인 밀수 단속방안, 암페타민류 각성제 제조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등에 관해 토의

2. 기타 국제회의 참가

가. 제11차 아·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 일본 경찰청 주최로 2006. 2. 7.~10.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어, 우리측 법무부 대표로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박성진 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와 유상모 검찰수사관이 참석하여 참가국 마약관계관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마약단속을 위한 효과적인 수사기법, 국제 공조 강화방안 등에 관하여 토의

나. 미국 마약청(DEA) 주관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 미국 마약청(DEA) 및 캐나다 경찰청(RCMP) 공동주최로 2006. 5. 9.~11.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어 세계 각국의 마약생산, 제조, 밀매현황과 그 대처방안 논의, 마약거래의 조직화,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간 국제공조체제 확인 및 현재 진행 중인 관계국간 실무적 공조회의에 참여

다. ASEAN+3 마약관련 회의

(SOMTC+3 Working Group Meeting on Narcotics)

- 2006. 8. 2.~4. 태국(치앙마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한·중·일 마약관련 고위관계관, UNODC 및 ASEAN 사무국 관계관이 참석하여 지역내 마약퇴치관련 현안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한국대표단의 ‘한-ASEAN 초국가범죄퇴치 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해 참가국 전원이 지지의사를 표명

제5절 국제 수사공조 사례

-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첫 범죄인 인수(2003. 5. 22, 서울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 우○○은 2002. 1. 초순경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9.3kg을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10여회에 걸쳐 중국산 필로폰 수십 kg(약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

➤ 공조사항

- 서울지검은 2002. 6. 6.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범죄인 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 2003. 3. 20.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우○○을 여권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 수사 후 우리나라 정보기관을 통해 서울지검에 추방형식에 의한 인도 제의
- 2003. 4. 22. 중국公安部 관계자에 정식인도 이행 촉구
- 2003. 5. 19. 중국 공안당국의 범죄인 인도 수락의사 확인
- 2003. 5. 22. 중국 심양시 소재 심양국제공항에서 서울지검 마약수사관 2명이 신병을 인수 받아 귀국하여 5. 23. 구속영장 발부 받아 집행
- 국내에서 필로폰의 밀제조사범들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제조하여 국내와 제 3국으로 밀수출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수사가 난항에 겪던 것을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마약사범들의 도피처는 더 이상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줌
- 미국 마약청(DEA) 등 범죄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2003. 6. 29, 서울지검)
- 사건개요

- 2003. 6. 29. 서울 ‘쉐라톤 워커히호텔’ 레이크 파티 현장에서 한국인 대학생 곽○○ 등 3명과 미군 9명에 대하여 MDMA를 밀매·투약 혐의로 각 검거

➤ 공조사항

- 서울지검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내사하여 혐의자들을 확인한 후 2003. 6. 29. 미국 마약청(DEA),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CID), 미공군 방첩수사대(OSI)등과 공조하여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
 - 내국인 3명은 국내에서 신병처리하고, 미군 9명은 행정협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미헌병대에 신병 인계
 - 향후 DEA, CID, OSI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하기로 협의
- 한국여성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국제 마약범죄조직 수괴 공조수사(2003. 10. 21. 서울지검)

➤ 사건개요

- 마약범죄조직 수괴 나이지리아인 오○○○ 프○○ 친○(1967. 2. 25. 생)는 2000. 8.~2003. 9.경 사이 한국인 여성 10명(브라질 등 5개국에서 구속 수감중)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한국, 일본, 네덜란드, 브라질, 영국, 독일 등지로 수회에 걸쳐 코카인 40kg, 대마 282kg 등을 밀수입

➤ 공조사항

- 서울지검은 2002. 12. 31. 인터폴에 지명수배 의뢰
- 2003. 1. 10. 프○○의 조직원인 공범 우○○ ○○○○ 등 3명 구속기소
- 2003. 2. 27. 프랑스 리옹 소재 인터폴본부 사무총국에서 수배서 발행, 배포
- 2003. 9. 25. 서울지검 주최로 프○○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청, 외교통상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 회의
- 2003. 10. 초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 등과 함께 회의 개최하여 프○○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경찰청 인터폴을 통하여 독일 인터폴에 검거 요청

- 2003. 10. 21. 독일에서 프○○ 검거, 2004. 2. 16. 인도재판을 심리한 독일 헤센주 지방정부에서 한국과 함께 인도요청을 한 덴마크로 인도 결정하여 신병을 덴마크로 송환

● 인천공항을 경유하려한 아편 밀수사범 공조수사(2003. 12. 5. 인천지검)

➤ 사건개요

- 2003. 12. 5. 인천공항에서 태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경유,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던 미국인의 수화물 가방을 정밀 검색하여 아편 9.88kg을 발견하고, 피의자 나○○○○(1979.11.3.생, 미국인) 외 4명을 검거토록 하고, 아편 20kg을 압수토록 공조

➤ 공조사항

- 2003. 12. 4. 19:30경 대한항공으로부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방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 가방을 정밀 검색하여 아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항공과 협조하여 위 가방의 주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는 가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미국 마약청에 상황을 전파하고 공조 요청
- 미국 마약청이 애틀란타에서 운반자 3명과 인수책 2명 등 5명을 검거함과 동시에 아편 20kg을 압수하는 개가를 올림

● 중국 인터폴과 공조하여 필로폰 밀수사범 구속(2004. 8. 30. 수원지검)

➤ 사건개요

- 중국 훈춘에서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경유, 속초항을 통해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마약 밀매단과 연계하여 필로폰 약 3kg을 밀수, 국내에 유통시킨 필로폰 밀수조직 속칭 ‘배사장파’ 총책 배○○(남, 51세) 등 17명을 적발하여 이중 10명을 구속기소, 2명 불구속, 5명 지명수배

※ 필로폰 122g 압수

➤ 공조사항

- 필로폰 소지혐의로 구속된 장○○(천안 송악파 부두목)로부터 중국내 조선족 필로폰 공급조직과 밀수 총책 배○○에 대한 정보 입수(2004. 5. 경)
- 필로폰 밀수가 기존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이 아닌 속초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속초항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중국 조선족 보따리상들을 중심으로 2004. 5. 경부터 집중적으로 내사착수
- 2004. 7. 25. 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연변주 공안구 내 간수소’에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는 정보 입수
- 2004. 7. 27. 외교통상부 동북아 2과를 통해 위 정보내용을 확인
- 2004. 7. 27. 경찰청 외사3과,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인터폴에 배○○의 범행내용, 체포영장 발부사실, 지명 수배된 사실 등을 통보하고 추방요구
- 2004. 8. 27. 중국인터폴(북경대사관, 경찰청 외사3과 경유)로부터 배○○에 대한 추방계획 통보 받음
- 2004. 8. 28. 10:50경 연길발 CA143편으로 국내로 추방
- 2004. 8. 28. 14:10경 인천공항 도착 후 체포

●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수(2004. 5. 6.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피의자 프○○ ○○(61세, 중국계 미국인)은 2002. 2. .27. 홍콩 소재 첵락콕 공항에서 황○○(중국인)을 교사하여 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662g을 국내에 밀반입

➤ 공조사항

- 서울중앙지검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 법무부를 통해 미국 측에 신병인도를 요청 후 미국 측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신병 인도 통보
- 2004. 5. 2. 수사관 2명 출국 후 LA 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신병 인수

● 캐나다 관련 국제마약류 밀반입사건 (2005. 2.~ 7. 수원지검)

➤ 사건개요

- 2005. 2. 8.과 같은 달 10. 캐나다에서 밀수된 필로폰 3kg 중 1.9kg과 엑스터시 8,832정을 국내 보관책인 최○○과 주○○으로부터 각 압수하고, 이 압수물들이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수조직(한국계)이 일본 야쿠자에게 전달할 물건이었음을 확인하여, 캐나다 마약밀수조직원인 에○○(밀수총책), 소○○(운반책관리), 최○○(운반책관리)과 운반책인 황○○ 등 대한 수사과정에서 캐나다 경찰 및 일본 검찰과 공조 수사

➤ 공조사항

- 2005. 6.경 주 홍콩 캐나다 경찰 연락관과 위 조직에 대한 공조수사 위한 회의
 - 캐나다에서 수사 중인 코카인 밀수사건 수사기록 사본 송부의뢰, 마약밀수 배후인 국제폭력조직 삼합회의 개입여부, 캐나다 거주 마약밀수사범 최○○, 소○○의 추방문제 등 논의
 - 일본에 검거되어 조사 중에 있던 한국인 마약운반책인 강○○과 이○○에 대한 수사기록사본을 송부 받는 등 수사 진행상황 통보확인
- 한·중·괌 연계 필로폰 밀수사건 (2006. 8. 23.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 2006. 8. 12. 중국 청도발 여객선을 통해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다음 같은 달 23.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필로폰 약 530g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가 검거되어 미수에 그침

➤ 공조사항

- 세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하여 국내 밀수사범 뿐만 아니라 괌 현지 마약 밀매사범까지 검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착수
- 2006. 8. 12. 중국 청도발 여객선을 통해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공범 검거를 위하여 통과시킨 다음 같은 달 23. 인천공항에서 동인으로 부터 필로폰 약 530g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괌으로



출국하는 운반자로부터 위 필로폰을 수거하여 압수

- 운반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검찰 마약수사관, 세관 및 국정원 직원 등 3명이 괌 현지까지 동행토록 한 후 괌 현지 밀매조직과 접선을 위해 대기하던 공범을 미국 마약청(DEA)으로 하여금 검거하고, 국내에 있는 피의자 및 관련 공범 검거